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음 12월 12일) 제22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 업무 협약식이 16일 전주시 전북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성환 전북도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산하 공기업 · 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최종 합의

도-도의회-도 공기업 · 출연기관장 협약 체결 “전문성 · 도덕성 검증”... 전개공 등 대상 실시

전북도와 도의회가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송성환 의장은 16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인사청문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송지용 부의장, 김대중 운영위원장, 오광근 의원과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인사청문 실시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부터 우선 실시하고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인사청문 대상자 제출서류는 직무수

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증빙자료, 병역 및 재산신고,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자료, 인사청문 공개 및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서 등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인사청문 기간은 1일 이내로,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쳐야하고,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하기로 했다. 송성환 의장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북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등 5개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임명함으로써

도 산하기관의 경영적자 해소 등 경영합리화와 전라북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유도, 알권리 보장 등 주민의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인사청문회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능력 등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도 산하기관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청문 과정이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업무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관문이 될 것이므로 인사청문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고 실효성을 거두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여성단체연합 “체육계 성폭력 철저 조사를”

체육계의 성폭력 사태로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체육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최근 논란에 휩싸인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 전북지역 유도선수 출신 신유용씨의 폭로에 전폭적인 지지와 강력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단체들은 “성폭력은 합숙소와 훈련장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조직문화에 길들여져 피해자 또한 묵인하게 되며 오랜 기간 방조, 은폐됐다”며 “특히 이번 유도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에도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졌고, 체육계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까 봐 쉬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당당하게 폭로한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지역주재기자	익산 0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9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전주, 사회혁신 대표도시로

시,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등 도시재생 분야 3대 전략 제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조성중인 소통합력공간과 주민·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모델로 대한민국 사회혁신을 이끌어가는 대표도시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폭넓은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공동체 육성과 사람을 우선하는 창조적 도시재생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전주다운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16일 사회적경제지원단 신년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며 전주형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중심도시로 도약을 비전으로 한 사회적경제·공동체·도시재생 분야의 3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4면> 3대 추진전략은 △협력과 포용의 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주민 중심의 풀뿌리 공동체 활성화 △주민·지역 주도 전주형 도시재생 실현이다. 또한, 시는 올해 전국이 주목하는 대표 사회적도시로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관련 모든 정책 추진시 주민이 주도하도록 만들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전주형 모델을 구축, 확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효철 기자

동시에, 중앙동 등 원도심 12개동에서 추진중인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만큼 성공모델 확산을 통해 자치실현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마을계획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 등과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또, 민·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재생대학과 도시재생 포럼·세미나를 확대 추진하고 시민 참여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도시재생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전주형 사회적경제·도시재생은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주민주도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사회혁신 전진기지, 도시재생 1번지, 행복정책 및 사회적경제 리더도시 등 전국 도시재생 관련 모든 정책 추진시 주민이 주도하도록 만들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전주형 모델을 구축, 확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효철 기자

매일 INDEX

3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신년 브리핑	4면 -서영교·손혜원 진상조사 착수	5면 -전주대, 입학금 25% 인하
-----------------------	---------------------	---------------------

2019 평화통일 기원 신년하례회

일시 - 1월 18일(금) 오후 6시(식전공연 5시 30분)
장소 - 전주 르윈호텔 1층 백제홀
주최 - 전주매일신문, 평화통일지도자전북협의회, JJC지방자치TV 전북본부
주관 -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북지회
내용 - 도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 신년인사
연락처 - 063-223-6138, 236-1221